

Let's Master 원자재 시장 ③ 셰일혁명

고유가 끌어내린 셰일오일 ... 국제 원유시장 '축각'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 잠베시호가 7월30일 원유를 싣고 캘버스턴 항을 출발. 목적지 한국을 향해 돛을 올렸다. 이 항해는 미국 에너지산업의 중대한 전환점을 상징한다. 유조선에 선적된 원유 40만배럴은 40년 만에 미국 본토 원유가 처음 제한 없이 수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조선의 출항은 미국이 석유 수출국으로 20세기 전반기에 세계적으로 행사했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잡는 무대의 막을 올리는 것이다.”

2014년 10월7일자 뉴욕타임스 특집기사 ‘미국, 석유 유통의 전환점에 서다’란 제목의 기사 내용이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하고 불과 3개월 후 시집이다. 소위 셰일혁명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셰일혁명이란 대량으로 생산된 셰일오일이 세계 석유시장에 준 충격을 말한다. 셰일오일은 지하 1000m 이상 깊이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셰일암(頁岩·頁岩)을 ‘수압파쇄공법’이란 신기술로 분쇄해 채굴한다. 복잡한 공법과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처리를 위해 채굴 비용이 높다는 게 단점이다.

셰일혁명의 진원지는 미국 텍사스주다. 텍사스 출신 가스채굴업자인 조지 미첼이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수압파쇄공법 덕분에 텍사스 황야에는 셰일석유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캘버스턴은 텍사스의 ‘석유 수도’라 불리는 휴스턴을 배후지로 둔 무역항이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월 11일, 국제 유가는 배럴당 26달러를 기록했다. 2003년 5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가가 급락한 이유는 중국과 유럽 등 주요 소비국의 경기부진 요인이 크다. 또 다른 이유는 ‘셰일혁명’ 때문이다. 위 기사는 셰일혁명으로 미국이 석유 수입국에서 석유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출항점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셰일혁명 이전 오랫동안 기존 산유국들이 과점의 이익을 누리



던 원유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2013년 미 에너지국(EIA) 추정치 따르면 세계 셰일오일 매장량은 약 3450억배럴에 달한다. 러시아가 750억배럴로 세계 1위며, 미국(580억배럴)과 중국(320억배럴)이 뒤를 잇고 있다.

지난해 말 에너지시장에서는 이전에는 보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일부 산유국을 중심으로 산유량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일이 나왔다. 재미있는 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원유 수입 감소로 인해 복지정책을 축소하면서도 말이다.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동의 봄’ 시절, 왕조 유지에 대해 확실한 복지정책이다. 이의 축소는 왕정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우디가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는 셰일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유가를 낮게 유지해 생산비용이 높은 셰일오일 생산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려는 전략이다.

한때 100\$ 넘었던 국제유가 셰일오일 생산으로 하락

원유시장 공급과잉 논란 속 유가 50\$대 유지할 지 주목

소위 ‘치킨게임’이다.

이런 정책은 일전 성공하고 있는 듯 보인다. 유가 하락으로 상당수 미국 셰일업체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셰일오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서 생산비 원가가 낮아질 수도 있다. 중동 국가들도 궁극적으로는 감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원유시장은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 감소로 공급을 조절해야 가격이 간신히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산유국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현재 디플트(채무불이

행) 위기에 빠져 있는 베네수엘라 등의 산유국들이 감산에 적극적인 이유다.

6월 현재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4개월여 동안 100% 가까이 급등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의외로 조용하다. 셰일오일로 인해 원유시장은 여전히 공급 과잉이라고 믿고 있다. 원자재시장 분석 전문가인 글로벌마켓포커스가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유수 기관들 역시 내년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유시장처럼 지정학적 요인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원자재도 드물다. 옥스퍼드대 교수이자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였던 폴 루어는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나라들의 내전 발발 가능성이 얼마인지를 계산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지하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내전 위험은 0.5%인 반면 지하자원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는 23%에 달했다. 배럴당 50달러를 소폭 밑돌고 있는 유가는 이들 산유국이 시장 점유율 정책을 펼치고 감산에 돌입하면 그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더욱이 내전이라도 발발한다면 말이다.

“그때는 최고의 시절이었다. 그때는 최악의 시절이었다.”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찰스 디킨스의 유명한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서문이다. 1859년 출간된 이 소설에는 변화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단두대 끝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숨겨져 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은 국제 유가는 지난 2월 26달러까지 떨어지다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2년 뒤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가능성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저(低)유가 시절을 즐기기에 최악의 시절에 대비해야 한다.



문준주 글로벌마켓포커스 대표

수능·학력고사 암기 위주 탈피 창의력·융합적 사고 인재 발굴

에듀 칼럼 (1)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흙수저는 발만 동동’ 같은 자극적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학종이 왜 필요한 것일까.

학종이 등장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언뜻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학종 이전의 전형들은 ‘주어진 지식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외울 수 있는가’를 평가했다.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그런 기술을 통해 선두주자 따라잡기를 할 때는 이런 유형의 인재가 필요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휴대폰시장도 우리 기업이 선도하고 있다. 추격 경제의 시대는 끝났다.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할 인재가 필요하다. 협력과 창의력, 융합적 사고를 하는 인재가 필요해진 것이다. 부품 하나 생산하지 않고 오로지 조립과 소프트웨어에만으로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기업을 만든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 말이다.

수능이나 학력고사 같은 방식 대신 학종으로 선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업능력 자체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보자는 의도다. 암기



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능력과 가치를 겸비할 수 있는 학생을 뽑자는 취지다. 학종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거대한 변화와 흐름을 반영한 제도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시험 범위와 평가 방식을 준비하듯이 학종의 평가 방식에도 학습이 필요하다. 학종에서는 정성평가 방식을 통해 학생을 평가한다. 정량(定量)의 반대말이다. 90점이거나 9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90점을 맞았을까, 다른 과목은 몇 점일까 등 90이란 숫자 뒤에 숨은 여러 가지 사실에 주목하는 식이다.

학종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평가자인 대학은 어떤 가치를 뽑고 싶어 하는가. 둘째, 나는 어떤 가치를 어떤 경로로 통해 보여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대학에서 ‘나눌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면 교내 봉사활동이나 학급반장 경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보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나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준규 열람실공동대표



청년취업아카데미 연수생 NIA 빅데이터센터 교육

한국경제신문은 최근 경기 판교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 K-ICT빅데이터센터에서 ‘청년취업아카데미-빅데이터 소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상반기 과정에 학생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학습을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시작한 연수생들은 앞으로 K-ICT빅데이터센터 오픈랩에서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문인들의 강의와 빅데이터 분석 툴 ‘파이썬’ 등을 배울 예정이다.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 유공자 21명 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영환)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술사업화의 성공 열쇠, 개방형 혁신에서 답을 찾다’란 주제로 2016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사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6개 분야의 기술사업화 유공자 21명을 시상하고 기술사업화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사업화 책임기획단 발대식’도 열었다. 이밖에 기술나눔 업무협약식과 특별강연, 대학생 아이디어 팩토리 경진대회, 최고경영자(CEO) 오픈이노베이



선 포럼 등이 개최됐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과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기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모시니다

대입 자기소개서 전략 설명회 ... 20일 한경아카데미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한경아카데미는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법과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에 대한 오픈 강연을 합니다.

● 일시 : 7월 20일(수) 오전 10~12시 ● 주제 : 합격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전략, 학생부 기반의 개인별 맞춤형 자소서

실제 등 ● 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3층 한경아카데미(2.5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 대상 : 학생부종합전형 대상 학부모 및 학생 ● 강연자 : 수시합격의 진심 저자 이수민 씨, 어준규 공교육지원센터 연구원 ● 참가비 : 무료 ● 문의 : (02)360-4045 issue@hankyung.com ● 접수 : 한경아카데미 홈페이지

주최: 한경아카데미

국비지원교육

중견·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한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과정 『경영·마케팅』 2개 과정

한국경제신문사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중견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1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중 각 과정에 적합한 참여자
- 02 수료 조건** 각 교육과정별 80% 이상 참여
- 03 교육비용** 전액 무료

| | |
|---|---|
| 마케팅 강사: 한수준 대표(ROS) 브랜드에 의한, 브랜드를 위한 비즈니스 현상 진단과 대안 수립 - (서울 강남) 2016.07.07 ~ 07.08 / 2일, 16시간 - (대전 서구) 2016.07.11 ~ 07.12 / 2일, 16시간 | 경영기획 강사: 이희훈 소장(미래경영연구소) 중소기업 생존-성장 노하우, 지주의 체질 개선과 성장전략 기획 및 설명 - (서울 강남) 2016.07.13 ~ 07.15 / 3일, 21시간 - (서울 강북) 2016.08.29 ~ 08.31 / 3일, 21시간 |
|---|---|

04 특별반 구성 각 교육별 10명 이상 단체 신청일 경우 별도 개설 가능(일정, 지역 협의 가능)

주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한국경제신문 문의: 02)360-4886 http://ac.hankyung.com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한국경제신문이 운영합니다

- 교육일정: 월 2회 상시 진행(3일 / 24시간)
- 교육장소: 한국경제신문 본사 3층 (2.5호선 충정로역 4번출구)
- 수강료: 13만원 (부가세 없음, 음료 및 점심식사 제공)
- 특기사항: 수료후 취업알선, 접근성 탁월, 교육환경 우수
- 신청문의: 02) 360-4080, http://ac.hankyung.com

- ✓ 구청등 일자리센터와 연계하는 취업알선 지원
- ✓ 경비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
- ✓ 직무수행의 능률화
- ✓ 부적격자 배제
- ✓ 직무습득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의 절약

경찰청 지령교육기관 한국경제신문